



왼쪽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진행 중인 모습. 오른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보고회 진행 모습.



## 취약지역·수방시설 713곳 사전점검... 하천 통제 골든타임 예·경보체계 신설



AI 침수예측시스템 활용 연속형 빗물받이 330m 신설  
 빗물받이 1만7207곳·하수관·하천 퇴적도동 준설 완료  
 가산디지털단지지역 배수체계 개선등 대형 인프라사업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0월15일까지를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라고 전망했다. 강수량에 대해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기압이 발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해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구는 올여름 풍수해 대응 수위를 예년보다 한층 끌어올렸다. 구는 지난 5월 사전 예방기간 동안 수해취약지역과 수방시설 713곳을 점검해 66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도 기존 15곳에서 산사태우려지구·반지하주택 등 5곳을 추가 발굴해 총 20곳으로 확대해 모두 정비했다.  
 이 같은 사전 준비 후 구는 지난 5월15일 개소식을 열고 13개 실무반 87명 규모의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있는 모습. 아래 저류조 유입수문 게메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방재시설 및 치수시설을 정비해 배수 성능 확보  
 구는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배수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침수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침수 위험구간에 연속형 빗물받이(330m)를 신규 설치했다.  
 빗물받이는 도로나 주거지역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빗물받이가 담배꽂초, 낙엽,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도로 침수와 지하공간 역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지역내 1만 7207곳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했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준설을 실시해 2만 4807곳 빗물받이 준설을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는 안양천 하상 퇴적도 준설(6000m)을 통해 하천 통수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  
 오는 12월까지 집중호우 시 배수 방벽이 발생하기 쉬운 하수관, 암거 1067m 규모를 준설하고 하수관 4만 5320m 등을 세정한다.  
 상습 침수구역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산디지털단지지역 일대 배수체계 개선(24억5000만원)과 시흥



2026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

사거리 하수관로 정비(121억원) 등 총 145억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 골든타임 예·경보 체계 구축  
 구는 수도권 돌발 강우(3mm/h 이상) 감지 즉시 수방시스템과 연동해 하천을 선제 통제하는 골든타임 예·경보 체계도 새롭게 갖췄다.  
 상황 발생 시에는 네이버 밴드, 카

카오목 단체방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구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실정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5월19일)에 이어, 극한강우(시간당 100mm)·태풍 시나리오를 가정해 도상 훈련을 6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해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응력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동네 수방거점 6곳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방자재를 지원하고

침수피해 발생시 임시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풍수해 대응 응급조치 현장지원반, 안양천 하천순찰단 등을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지하주택·반지하 등 침수 취약 가구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며 "인명피해ゼロ,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祝 · 시민일보 창간 32주년

#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언제나 구민 곁에 든든한 송파구의회가 되겠습니다”